여성은 왜 아이를 갖고자 하는가 -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이 경 은 · 안 혜 경 · 강 희 송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및 출산율 감소 현상으로 인해 저출산·저출생 문제가 더욱 화두가 되고 있다. 여성의 출산의도 및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서 경제적 접근을 취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지만,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행위는 복잡다단한 인간의 행태와 메커니즘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데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다양한 교환관계와 관련된 자원들이 여성의 출산의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 응답한 기혼여성 총 5,710명의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미취학·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와의 관계 측면에서, 여성이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느낄수록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이 줄어든 반면, 자녀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된 양육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일수록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 배우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배우자와의 갈등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성일수록 출산에 대한 의도를 가질 확률은 감소하였으나, 배우자가 2순위 양육자로 참여하는 경우 여성이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여성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여성일수록, 그리고 부모가 주된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할수록 여성이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 여성의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기는 어려웠다.

추가적으로 미취학·초등학교 재학 자녀 이외의 자녀를 둔 여성과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기혼 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취학·초등학교 재학 자녀 이외의 자녀를 둔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환관계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무자녀 여성의 출산의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교환 관계 변수는 자녀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뿐이었다. 이와 더불어 무자녀 여성의 출산의도에는 자가 또는 전세의 주거 형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여성의 출산의도에 있어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비경제적 자원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은 여성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 집단에 대한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해 하에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교환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였다. 먼저, 자녀와의 긍정적 교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자녀의 심리 및 발달단계 등을 이해하고, 양육에 있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양육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상시 제공, 첫 자녀 양육 교육의 제도화,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가족·출산·양육에 대한 가치 형성 프로그램 설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긍정적 교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부부 간의 정서적 지원 및 원만한 소통의 중요성 강조, 부부 갈등 예방 학습 프로그램 제공, 여성과 배우자의 공동육아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여성과 부모 간의 긍정적 교환관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사회는 가족구성원(배우자, 조부모 등)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정부・사회가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가 가족구성원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자녀 가구의 첫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Ⅰ. 서 론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1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18%)을 기록하며 감소하기 시작하여 40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37년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통계청, 2023a). 우리나라의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은 전 세계 유래 없는 초저출산 현상으로부터 기인한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함에 따라 전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던 것이 무색하게,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0.7명을 기록하여 2023년 연간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통계청, 2023b; 경향신문, 2023[1]). 급락하고 있는 출산율과 이로 인한 초저출산 현상은 미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국가성장의 둔화, 노인부양부담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주의적인 가치 성향의 강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결혼기피 또는 만혼, 자녀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 및 경제적 부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Lesthaeghe and Moors, 1996; Van de Kaa, 2001; Cochrane, 1979; Caldwell, 1980; 성낙일·박선권, 2012; 오삼권·권영주, 2018). 이는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개인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는 연구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 설계 및 진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가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들은 학계 및 정책 현장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왔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출산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의 출산의사결정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저출산과 같은 복합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와 관련된 인간의 행태 및 그 행태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 깊은 이론적 고찰과 그 이론적 명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김정연・김영주, 2022). 그리고 교환이론은 그동안 조직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개인의 의도와 행태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거시적・미시적 접근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저출산과 같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데 탁월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유종열, 2010).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교환이론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초기 연구들

1) 경향신문. (2023.08.30.). 출산율 0.7명...끝 모를 인구 감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302101035)

을 정교화하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를 통해 이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출산을 둘러싼 복잡한 교환관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여성의 출산의도

출산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사회를 존속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충원과 사회 증대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이자 사건이다(배광일, 2015). 또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한 가구의 구성원들에게 권리, 재산, 사회적 지위, 가치 등이 교환되고 전승되며 재구성되는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김은실, 1996). 이와 더불어, 부부관계에 있던 여성과 남성 개인에게는 기존의 '아내'와 '남편'이라는 역할 이외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부여됨으로써 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다(이희연, 2003).

이러한 출산은 가장 직접적으로 생물학적 측면에서 여성의 가임능력 유무에 의해 결정되나, 피임에 대한 지식이 널리 공유되고, 자녀계획에 따른 출산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출산이란 더 이상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욕구,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지 등에 의해 결정되는, 한 가구, 특히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의도적 행동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Di Giulio et al,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Richter(1994)는 출산을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 또는 생각이 완결된 후 발생하는 후속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 또는 생각'이 출산의도와 관련된다. 셀라즈(Sellars)는 심리적 배경을 이루는 태도와 욕구가 일종의 실천적인 추론(practical reasoning)을 야기하며, 이러한 추론으로부터 형성된 의도(intention)가 행위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김선희, 1989). 그리고 이러한 의도에는 현재의 의도와 미래의 의지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출산의도는 출산이라는 행위의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써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 또는 생각'을 바탕으로 형성된 '현재 또는 미래에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의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출산의도가 반드시 출산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하지 않은 임신, 태아사망률, 불임 및 난임 등과 같은 출산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이 모두 반영된, 출산율이나 출생자 수와 같은 출산행위의 결과 변수를 분석하는 것이 출산행위를 예측함에 있어 더 정확할 수 있다[2].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개인들의 출산의

도를 높이고, 이렇게 높아진 출산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출산행위를 증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높으므로, 출산의도에 대해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배광일, 2011). 특히,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출산의도는 출산행위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배광일, 2015).

2. 교환이론과 여성의 출산이론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의도적 의사결정 모형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은 개인적인 선호(personal preferences)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자원(resources)과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끄는 일종의 규칙(rules)을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진다(Bühler・Fratczak, 2007). 어떤 행위에 대한 선호는 개인이 그 행위를 하는 과정과 그 행위의 결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다양한 이익에 의해 형성되나, 실제로 그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Bühler・Fratczak, 2007). 즉,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인간은 목적한 행위를 실행에 옮길 수 없으며, A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B라는 행위를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크게 인식될 때 인간은 A라는 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재 또는 미래에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고자 하는 여성의 의사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선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관련되어 여성이 가용할 수 있는 또는 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원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여성의 출산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온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자원에 따라 여성의 출산의도 또는 출산행위가 결정된다는 경제학적 관점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 등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출산계획, 출산의도, 출산행위, 추가 출산행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실증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Yi・Zhang, 2010; Hui et al., 2012; Simon・Tamura, 2009; Lovenheim・Mumford, 2013; Dettling・Kearnet, 2014; 김동현·전희정, 2021; 박서연, 2019; 김선숙·백학영, 2014; 이다은·서원석, 2019; 이병재·김태완, 2018; 이다은·서원석, 2021; 김현식, 2017; 유계숙, 2010; 배광일, 2015; 은선경·박효진, 2020; 주효진 외, 2010). 그러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관련되어 여성이 가용할 수 있는 또는 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원을 경제적인 자원으로 제한하는 경제학적 관점은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여성의 출산의도 또는 출산행위를 결정짓는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환이론을 통해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그

2)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는 출산의도와 그 의도의 실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사건들의 최종 결과물이다(Di Giulio et al, 2012).

러한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다양한 비경제적 자원들이 여성의 출산의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교환이론[3]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이론들의 기본 전제를 공유한다. 즉,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목적 또는 의도를 가지며, 선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목표에 따라 행위를 하고, 자원의 희소성과 기회비용은 행위의 제약을 만든다는 것이다(유종열, 2010). 다만, 기존의 합리성 이론의 경우 인간은 이기적 존재로 간주하는 반면, 교환이론가들은 인간을 교환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최대화하려는 이기적 성향을 가진 존재이자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절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타적 성향도 동시에 가진 존재로 본다. 또한, 기존의 합리성 이론의 경우 개인의 행위 일반에 관심을 두는 데 비해, 교환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사회적 행위란 적어도 두 사람 간에 교환자원(금전, 물품, 칭찬, 존경 등)을 주고받는 반복적 행위를 의미한다(유종열, 2010). 교환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여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며, 이를 통해 권력적으로 대응한 교환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김명자, 1990).

교환이론에서 말하는 자원은 비단 경제적 자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비경제적 자원을 포함한다. 많은 학자들이 교환자원의 유형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Foa(1974)의 6가지 자원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제시한 6가지 자원은 사랑(love), 서비스(services), 재화(goods), 금전(money), 정보(information), 지위(status)이며, 각 자원은 다른 자원과 교환될 수 있고, 동일한 자원을 상호 간에 교환할 수도 있다.

<표 1> Foa의 6가지 자원 유형

자원의 종류	내용
사랑(Love)	따뜻함, 애정, 관심 등으로 표현되는 자원
서비스(Services)	일이나 노동 등 신체적으로 행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재화(Goods)	물질이나 물건, 상품화된 상태로 교환 가능한 자원
금전(Money)	화폐 등을 통해 교환 가능한 자원
정보(Information)	조언, 지식, 의견 등으로 표현되는 자원
지위(Status)	존경, 존중, 자존감 등과 관련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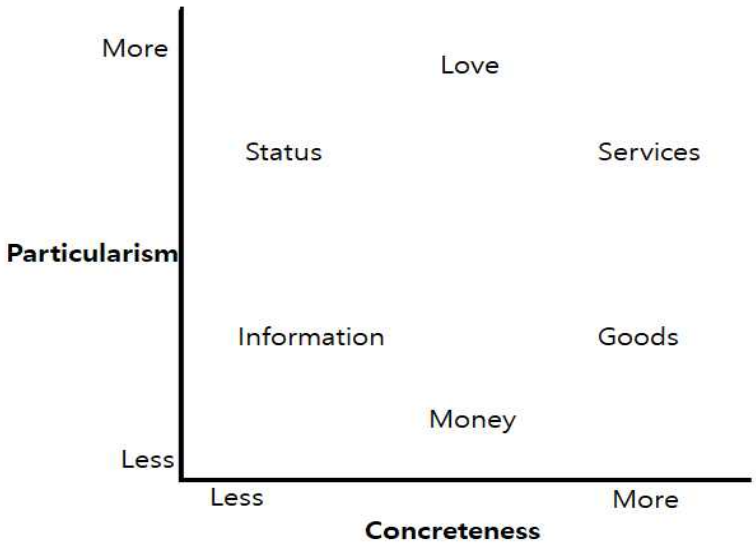
출처: Foa(1971)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Foa(1971)는 자원의 특수성과 구체성 정도에 따라 6개의 자원 간 관계를 도식화하였는데(<그림 1> 참조), 자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체 가능한 자원이며 거리가 멀수록 대체 불가능한 자원임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랑은 지위(Status), 서비스

3) 교환이론은 George Homans가 1961년 「사회적 행동: 그 기초형태(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라는 저서를 통해 제기한 이론으로, 비교적 최근에 발달했기 때문에 행태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집단의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이론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으며,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유종열, 2010).

(Services)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호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라 볼 수 있으나 가장 거리가 먼 금전(Money)은 사랑이라는 자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6가지 자원 중 '사랑'은 가장 특별한 자원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교환하며 장기간에 걸쳐 교환되는 반면, '재화', '금전'은 가장 보편적인 자원으로 누구와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른 영향이 가장 적은 자원이다(Robert, 1975). 이러한 Foa의 자원 구분은 경제적 자원교환에 한정되지 않는 실제적인 교환관계 및 그에 근거한 인간의 의도 형성 및 행위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Burr et al, 1993).

<그림 1> 특수성과 구체성에 따른 교환자원 간 관계도



출처: Foa(1971), p.347

위와 같은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여성의 출산의도 및 이를 통한 출산행위를 바라보면, 여성의 의도적 출산은 단순히 여성의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 가족 내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개인 및 사회적 관계에서 얻거나 지불해야 하는 다양한 교환자원의 제약 하에서 형성된 의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선택 행위라고 할 수 있다(Di Giulio et al, 2012). 경제적인 자원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비경제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4]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5]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원과 지지 또한 여

4)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태도는 여성에게 중요한 교환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Bühler and Fratczak, 2007).

5) 여성의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무로 바라보는 사회에서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한편, 출산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의사결정을 비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쉬우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적 압력은 여성의 출산의도를 강화하는 자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Bühler and Fratczak, 2007).

성의 출산의도 및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Bühler and Fratczak, 2007). 실제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 자원이 여성의 출산의도 또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Bühler · Philipov, 2005; Bühler · Fratczak, 2007; Philipov et al. 2006; Philipov · Shkolnikov,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원의 교환관계로만 설명될 수는 없으며, 개인-개인, 개인-집단, 개인-사회 간의 관계에서 교환되는 비경제적 자원들의 작용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편익의 교환을 의미하는 호혜성은 다양한 교환 형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환행위에서 발견된다(Sahlins, 1972). Putnam(1993)은 호혜성을 균형적(balanced) 호혜성과 확산적(diffuse) 호혜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 교환 당사자들 간에 등가의 편익이 동시에 교환되는 관계는 균형적 호혜성이 바탕이 되나, 이것이 모든 교환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한 쪽 당사자에게는 당장의 편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편익의 가치가 불균형하더라도, 미래에는 반드시 보상받으리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Putnam(1993)은 이를 확산적 호혜성이 바탕이 된 관계라고 보았다. 지금 당장 교환관계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사회적 교환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확산적 호혜성 또는 장기적 호혜성의 규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최진희 · 한경혜, 2017).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경우 서로 다른 생애주기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교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확산적 호혜성의 규범이 그 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Silverstein et al.,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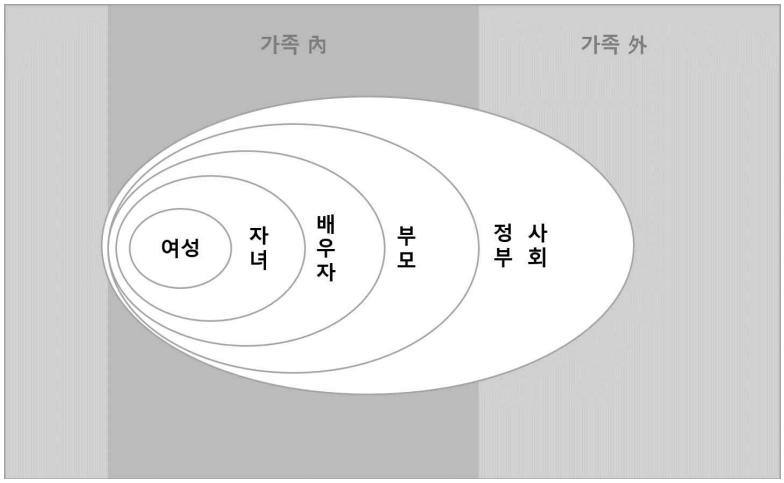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는 '교환관계의 단절', '교환 자원의 불균형 상태'로부터 야기된다(Tunner, 1978). 그리고 이렇듯 교환관계의 균형 상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환 당사자들은 이에 불만족을 느끼고 이러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략적 행위를 취하게 된다(김현주 외, 2021)[6]. 이러한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출산 포기 또는 기피라는 사회 문제는 여성이 자녀를 낳을 경우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비용, 즉 긍정적 교환자원과 부정적 교환자원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큰 상태, 즉 여성의 출산에 불리한 형태의 자원 불균형 상태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불균형 상태에서 여성들이 자녀를 낳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을 포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보상 원천을 개발하는 일종의 균형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여성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을 수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출산에 유리한 자원 불균형 상태를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여성의 출산을 둘러싼 교환관계에서 가치가 큰 자원을 식별하고, 그 자원을 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Emerson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른 자원을 통한 보상', '또 다른 보상 원천의 개발', '새로운 자격 및 지위의 획득', '강제력의 사용', '연합활동', '보상의 포기', '소유한 자원의 질 향상' 등 7가지의 균형 전략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유종열, 2010).

3. 여성의 출산을 둘러싼 교환관계 분석

여성의 출산을 둘러싼 교환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1) 여성과 자녀와의 관계, 2) 여성과 배우자와의 관계, 3) 여성과 부모와의 관계, 4) 여성과 정부 및 사회와의 관계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자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크게 '가족'[7]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관계지만, 정부 및 사회와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범주를 넘어선다.

<그림 2> 여성의 출산을 둘러싼 교환관계의 범주



1) 여성과 자녀 간의 교환관계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교환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은 자녀이다. 여성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주된 자원은 경제적 자원과 비경제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자원으로는 보육 및 교육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비경제적 자원으로는 육아 서비스, 자녀에 대한 애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녀가 여성에서 제공하는 자원은 주로 비경제적인 자원들이며, 정서적 유대 및 교감, 심리적 위안, 육아부담감 또는 스트레스 등이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여성과 자녀 사이에 교환되는 자원들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여성이 자녀와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응하여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원은 여성에게 긍정적임과 동시에 부정적일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상(긍정적 자원)과 비용(부정적 자원)의 교환으로 바라보는 교환이론가들의 관점을 적용했을 때, 출산에 대해 여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즉 부정적 자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 즉 보육비

7) 가족은 '근원가족(family of origin)'과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원가족은 한 개인이 태어난 가족으로 그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생식가족은 그가 결혼을 통해 형성한 가족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백경숙 외, 2020).

와 교육비이다. 특히, 출산부터 대학 졸업까지 자녀 1명 당 보육 및 교육비를 합쳐 평균적으로 3억 8,198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8]가 보여주듯 최근 여성이 출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하게 되는 보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합리적 이익 추구자인 여성이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9] 여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인식하게 되는 비용에는 경제적 비용 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불하여야 하는 심리적・정서적 비용(부모로서의 책임감, 육아스트레스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양육 스트레스, 양육불안, 양육 부담감 등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비용이 후속출산과 출산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현정환, 2019).

그러나, 여성의 출산의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여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부정적 비용뿐 아니라 긍정적 보상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부모됨으로 인해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자녀와의 유대관계, 심리적 위안, 삶의 목적감, 자아실현감 등 긍정적 심리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Ryff et al., 1994; 노영주, 2000; 신기영·옥선화, 2000).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들은 부모의 역할 수행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의 향상, 자살률의 감소, 자기 관리 노력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성취 강화 등 긍정적 보상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차승은, 2005).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긍정적 자원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고자 하는 여성의 의사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비물질적 자원의 가치는 교환 당사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므로(김명자, 1990),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혹은 긍정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자녀에 의해 얻게 되는 심리적 보상의 크기는 커지게 될 것이며, 이는 여성의 출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여성과 배우자 간의 교환관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에 있어 여성과 공동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은 자신을 제외하고 가족 내 유일한 성인인 배우자에게 육아와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과 동등하거나 적어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은 출산이라는 행위의 보상으로 배우자가 공동 양육자로서 가정 내에 필요한 서비스, 정보, 사랑 등과 같은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혹은 제공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

8) 동아일보. (2019.10.10.) “아이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직장인 10년치 연봉 쏟아부어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0/97803147/1)

9)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혼재된 경향을 보이나, 보육 또는 교육비용과 여성의 출산 또는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유의미성를 발견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가 실제 지출되고 있는 보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적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향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 및 교육비가 적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배광일, 김경신, 2011; 신윤정, 2008; 박서연, 2019).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제공받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여성의 출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여성의 출산의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0)]

실제 기존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배우자의 역할 수행 및 여성과 배우자 간의 관계의 질은 여성의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선경・박효진(2020)은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미숙·김준수(2021)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육아참여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양육 참여가 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서석원·이대균(2014)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 등과 같은 여성과 배우자 간의 애정 자원의 교환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의 출산의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은선경・박효진(2020)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배광일(2015)의 연구에서는 두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부부갈등이 심할 때 추가자녀의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과 부모 간의 교환관계 분석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행해져 온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현재에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 형태이다(이윤진 외, 2015). 비혈연관계에 있는 보육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은 여성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또한 부모는 계약에 따른 조건을 엄격히 지켜야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며, 이미 자녀육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이 별도의 비용 투입 없이도 조언을 구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 경우, 여성이 부모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얻을 수 있거나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은 여성의 출산의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부모와의 양육분담, 부모로부터의 물리적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자원의 교환이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현정환(2019)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배우자,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받은 물리적 지원 즉 가족양육지원은 여성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민, 2012; 임현주 외, 2011). 또한 김현식・김지연(2012), 정은희・최유

10) 이러한 논의는 부부 관계의 질이 자녀 출산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던 Freidman 등(1994) 또는 Myers(1997)의 연구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석(2013)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부모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여성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오지혜, 2020).

4) 여성과 정부 및 사회 간의 관계

언어, 종교, 관습, 제도 등 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행태와 규범, 가치관은 지역 단위의 출산율뿐 아니라 개인의 출산의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김동현・전희정, 2021). 여성의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지지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에게 긍정적 지위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지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는 여성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출산과 양육의 핵심 주체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재한 사회에서 여성의 출산은 자아 영역의 개인적 자율성, 친교 영역에서의 친밀성, 사회 영역의 노동참여라는 삶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위험이자 기회의 박탈을 의미할 수 있으며(McDonald, 1996; 성낙일·박선권, 2012), 경제적 자원의 획득을 저해하거나 중지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자기 계발을 하거나 장기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소득을 창출하거나 이를 저축·투자하는 등 현재의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출산의도가 낮아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족 내에서 여성이 자녀에 대해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환자원의 가치에 비해 자녀를 출산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환자원의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인 것이다(유종열, 2010).[11] 한편, 정부와 사회가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전, 서비스 등의 자원은 여성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또 다른 보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사회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출산장려금과 공공 돌봄서비스, 그리고 육아 또는 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출산장려금, 공공 돌봄 서비스, 가족친화제도와 여성의 출산 및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일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2] 다만, 정부 및 사회가

11) 여성의 경제참여가 출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김동현.전희정(2021)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에서 여성의 노동참여수준이 출산율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다은.서원석(2021)은 유자녀 가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무자녀 가구에서는 임금근로와 자영업일수록 전업주부보다 첫 자녀를 출산할 의사가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은선경·박효진(2020)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2) 출산장려금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예를 들어, 박창우·송헌재(2014) 연구에서는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첫째와 둘째 출생아수는 증가하였지만 셋째 이상 출생아수는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김동현·전희정(2021)의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광역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모두에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호원(2011)은 출산장려금 정책이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모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공공 보육

제공하는 자원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여성의 출산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김일옥 외, 2011; 김동현·전희정, 2021; 유계숙, 2010),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수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박창우·송헌재, 2014; 한영선·이연숙, 2015; 김일옥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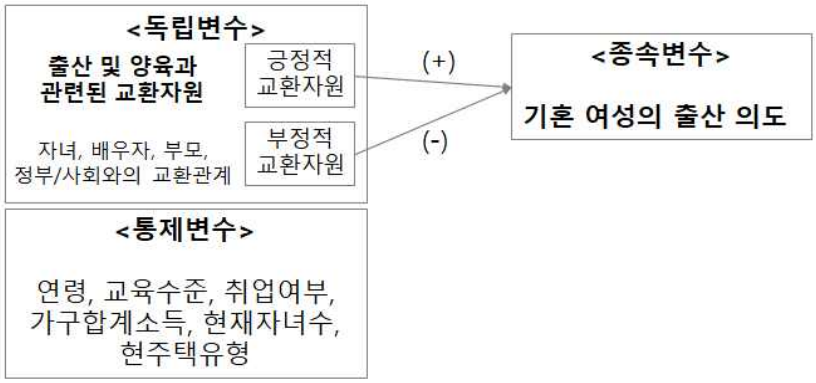
Ⅲ. 연구 설계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교환이론을 근거로 하여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다양한 교환관계와 관련된 자원들이 여성의 출산의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긍정적 교환자원과 부정적 교환자원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여성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교환관계는 자녀, 배우자, 부모로부터 직장, 정부 및 사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교환관계를 모두 모형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교환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교환자원을 구분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서비스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일관적이지는 않다. 김일옥 외(2011)의 연구에서는 양.질적으로 양호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취업여성에게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취업 여성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부모협동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등 다양한 보육시설 변수가 지역 출산율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한 김동현·전희정(2021)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협동보육시설만이 지역출산율과 정(+)의 관계를 가진 반면,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변수는 지역출산율과 관계가 없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히려 부(+)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간, 프로그램, 교사전문성 및 소통 등에 있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센터가 편중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저출산 지역)과 일부 운영상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정부 및 사회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특히 여성의 출산의사와 관련이 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직장 내 어린이집 등 가족친화제도의 존재 및 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출산 및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최치훈·안선희(2017) 연구에서 가족친화제도는 추가 출산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은 가족친화제도와 추가 출산의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친화제도와 추가 출산의향, 가족친화제도와 직장생활, 가족친화제도와 가정생활 모든 경로에서 한 자녀 집단이 두 자녀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받았다. 유계숙(2010)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보다 이용이 출산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가족친화제도 시행도가 높은 직장 근로자일수록, 가족친화제도 이용도가 높은 직장 근로자일수록 입사 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시행도에 이용도를 추가한 모형에서는 시행도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고 이용도만 출산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혜정·유규창(2011)에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개인의 일가정 양립 자각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선·이연숙(2015)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생애 전체출산, 첫 출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출산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육아휴직제도는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옥 외(2011)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이 취업여성에게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취업 여성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3> 본 연구의 분석 모형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를 근거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주요한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생애경로의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표본은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9,999가구이며, 해당 가구 내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 남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9,999가구의 14,538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이 조사는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및 특성, 부모와의 관계, 동거와 결혼, 임신출산건강, 산전후관리, 자녀양육, 일, 성장기와 주거이동, 가치관과 인식 등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에 응답한 기혼 여성 총 5,710명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출산 이전에 존재하는 결혼이라는 의사결정을 완료되지 않았거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환경적 맥락이 존재하므로 출산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혼 여성에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13] 분석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조사 당시 자녀가 없는 여성은 504명,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은 5,206명이었으며,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13) 결혼이 자녀 출산 이전에 반드시 존재하는 사건은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혼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과 출산을 등치시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제도 하에서 미혼 혹은 비혼 여성이 개별적으로 출산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중은 2.9%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치인 4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34.7%가 비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20-30대의 경우 약 40%가 비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통계청, 2022). 이는 결혼과 출산을 등치시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법적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비혼 출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다만,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출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결정을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는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에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있는 여성 중에서도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여성은 2,191명이었다. 각 분석모형에 따라 사용되는 문항이 변함에 따라 문항별 결측치의 차이로 인해 실제로 각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데이터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3.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여성의 출산의도는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낳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교환관계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출산의사결정을 둘러싼 주요한 관계에 따라 변수를 구성하였다. 첫째, 자녀와의 교환관계와 관련해서는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지불하여야 하는 부정적 교환자원과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긍정적 교환자원에 대해 측정하였다.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지불하여야 하는 교환자원은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과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있어 여성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문항들의 경우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만 조사되었다.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긍정적 교환자원은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등 총 4개 설문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대한 응답값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들이 육아에 참여함으로 인해 자녀와 직접적으로 맺는 다양한 교환자원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육아 1순위 또는 2순위 담당자가 여성 본인인지 여부와 관련된 2개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변수들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만 조사되었다.

둘째, 배우자와의 교환관계와 관련해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부정적 교환자원과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긍정적 교환자원에 대해 측정하였다.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이 배우자와의 교환관계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문항들의 경우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만 조사되었다. 여성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은 크게 정서적 교감 및 정보의 교환, 가사 분담, 양육분담 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총 5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먼저,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 및 정보의 교환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주변인 중 특히 배우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나 고민을 나눈다고 응답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배우자의 가사분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평일 및 주말 가사시간의 합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배우자의

육아분담과 관련해서는 육아 1순위 또는 2순위 담당자가 배우자인지 여부와 관련된 2개 변수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1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의 경우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만 조사되었다.

셋째, 부모와의 교환관계와 관련해서는 주로 자녀 양육 시 부모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교환자원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여성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은 크게 정서적 교감 및 정보의 교환, 육아 지원 등이 존재한다. 먼저,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 및 정보의 교환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주변인 중 부모 모두와 일상적인 이야기나 고민을 나눈다고 응답한 경우를 2,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 쪽과 일상적인 이야기나 고민을 나눈다고 응답한 경우를 1,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는 상대에 부모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육아 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 1순위 또는 2순위 담당자가 부모(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인지 여부와 관련된 2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의 경우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만 조사되었다.

넷째, 여성의 정부 및 사회과의 교환관계와 관련해서는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 및 정부가 자녀 출산 또는 양육 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 측정하였다.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에 있어 여성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자녀 출산 또는 양육 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육아에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 활용 여부를 측정하였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활용 여부는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만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의 출산 또는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합계소득, 현재자녀수, 그리고 현 주택유형(자가 또는 전세 1, 그 외 0)을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출산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혜정·유규창, 2011; 은선경·박효진, 2020; 배광일, 2015, 김일옥 외, 2011, 이다은·서원석, 202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출산의도가 높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이다은·서원석, 2021; 송유진, 2014, Brodmann et al, 2007).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즉 여성의 취업여부는 출산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동현·전희정, 2021). 가구소득은 높을수록(김선숙・백학영, 2014), 총 자녀 수는 적을수록(은선경・박효진, 2020) 출산 또는 출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주택유형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에 출산 또는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서연, 2019; 이다은·서원석, 2021).[14]

14) 특히 이다은·서원석(2021)의 연구에서는 무자녀 가구에서 주택형태가 월세보다 전세 또는 자가일 때

4. 분석 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항 또는 다항의 범주형 변수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의 출산의도'라는 이항변수이며, 이와 같은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는 여성이 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게 될 확률의 증감을 나타낸다. 선형회귀분석의 최소자승법(LSM: Least-Squares Method)의 경우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회귀계수를 추정하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최대 우도 추정법(MLE: Maximum-Likelihood Method)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Ⅳ. 연구 결과

1. 기혼 여성의 출산의도 분포 및 기초통계분석 결과

기혼 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교환관계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부정적 자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성의 출산의도 그 자체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출산의도가 없다고 답한 여성이 4,764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83.4%를 차지하였으며, 출산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710명 중 946명으로 16.6%에 불과하였다. 또한, 출산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946명의 여성들 중에서도 그 출산의도가 '확실하다' 또는 '매우 확실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592명으로 전체 응답 여성의 10.3%에 그쳤다. 출산의도가 있는 기혼 여성들의 비중이 16.6%에 불과하며, 그 의도의 확실성도 담보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표 2> 기혼 여성들의 출산의도 분포

출산의도 없음	출산의도 있음				전체
	매우 불확실	불확실	확실	매우 확실	
4,764명 (83.4%)	946명 (16.6%)				5,710명 (100%)
	42명 (0.7%)	312명 (5.5%)	465명 (8.1%)	127명 (2.2%)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별로 관측치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자녀 유무, 배우자 유무, 부모 생존 유무 등 여성들이 처한 조건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다.

<표 3> 기초통계분석결과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	출산의도	5,710	0.166	0.372	0	1
통제	연령	5,710	39.52	6.134	19	52
	교육	5,710	5.214	1.009	1	8
	취업	5,710	0.556	0.497	0	1
	가구소득	5,710	6.070	3.044	0	42.27
	현자녀수	5,710	1.965	1.157	0	10
	현주택유형	5,710	0.832	0.374	0	1
교환-자녀	자녀와의 갈등	3,674	2.732	1.543	1	7
	양육비부담	3,674	3.128	1.628	1	7
	긍정적자녀가치	5,710	2.816	0.379	1	4
	본인1순위양육	2,192	0.146	0.353	0	1
	본인2순위양육	2,192	0.500	0.500	0	1
교환-배우자	배우자와의갈등	3,674	2.699	1.435	1	7
	배우자교감	5,710	0.813	0.390	0	1
	배우자가사시간	5,541	2.145	1.990	0	20
	배우자1순위양육	2,192	0.00274	0.0523	0	1
	배우자2순위양육	2,192	0.0721	0.259	0	1
	배우자출산휴가	5,042	0.258	0.438	0	1
교환-부모	부모교감	5,710	0.432	0.576	0	2
	부모1순위양육	2,192	0.0132	0.114	0	1
	부모2순위양육	2,192	0.0844	0.278	0	1
	부모경제적지원가능성	5,307	2.873	0.839	1	4
교환-정부/사회	출산육아휴직연속사용	5,206	10.51	28.10	0	100
	사회적단절	3,674	2.897	1.561	1	7
	정부보육서비스활용	2,192	0.242	0.429	0	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 여성들의 특성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기초통계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여성들의 출산의도를 살펴보면, 무자녀 여성 집단의 출산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평균 0.683), 미취학・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여성 집단의 출산의도(평균 0.182), 그 외의 자녀를 둔 여성 집단의 출산의도(평균 0.068)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무자녀 여성에 비해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출산의도가 크게 낮아짐이 확인된다.

<표 4> 집단별 기초통계분석결과

변수명		무자녀			유자녀(미취학·초등)			유자녀(그 외)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종속	출산의도	501	0.683	0.466	2,191	0.182	0.386	3,015	0.068	0.252
통제	연령	501	34.33	6.774	2,191	36.09	4.721	3,015	42.87	4.803
	교육	501	5.327	1.051	2,191	5.394	0.950	3,015	5.064	1.020
	취업	501	0.701	0.458	2,191	0.461	0.499	3,015	0.601	0.490

변수명		무자녀			유자녀(미취학·초등)			유자녀(그 외)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501	5.548	2.951	2,191	5.834	3.064	3,015	6.327	3.022
	현자녀수	-	-	-	2,191	2.078	1.077	3,015	2.211	0.989
	현주택유형	501	0.741	0.439	2,191	0.823	0.382	3,015	0.854	0.353
교환-자녀	자녀와의 갈등	-	-	-	2,191	2.438	1.454	1,480	3.167	1.570
	양육비부담	-	-	-	2,191	3.050	1.613	1,480	3.243	1.645
	긍정적자녀가치	501	2.679	0.405	2,191	2.818	0.373	3,015	2.838	0.374
	본인1순위양육	-	-	-	2,191	0.146	0.353	-	-	-
	본인2순위양육	-	-	-	2,191	0.501	0.500	-	-	-
교환-배우자	배우자와의갈등	-	-	-	2,191	2.709	1.440	1,480	2.685	1.427
	배우자교감	501	0.904	0.295	2,191	0.839	0.367	3,015	0.779	0.415
	배우자가사시간	491	2.275	1.622	2,148	2.503	2.084	2,899	1.857	1.929
	배우자1순위양육	-	-	-	2,191	0.003	0.052	-	-	-
	배우자2순위양육	-	-	-	2,191	0.072	0.259	-	-	-
	배우자출산휴가	-	-	-	2,191	0.362	0.481	2,851	0.179	0.383
교환-부모	부모교감	501	0.519	0.637	2,191	0.556	0.599	3,015	0.329	0.527
	부모1순위양육	-	-	-	2,191	0.013	0.114	-	-	-
	부모2순위양육	-	-	-	2,191	0.084	0.277	-	-	-
	부모경제적지원가능성	473	2.985	0.825	2,120	2.950	0.835	2,712	2.794	0.837
교환-정부/사회	출산육아휴직연속사용	-	-	-	2,191	17.20	34.66	3,015	5.653	20.84
	사회적단절	-	-	-	2,191	3.003	1.593	1,480	2.741	1.500
	정부보육서비스활용	-	-	-	2,191	0.242	0.429	-	-	-

2.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부록>과 같다. 여성이 교환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 및 교환자원의 성격에 따라 교환자원과 여성의 출산의도와의 상관성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긍정적 교환자원은 여성의 출산의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교환자원은 여성의 출산의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환관계 및 교환자원이 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실마리를 제시해준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유의미성과 방향만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3의 요인, 즉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는 상태로 이루어진 분석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 이외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여성의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교환관계 및 여성의 출산의도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3.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유자녀(미취학・초등) 기혼 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에 대해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은 미취학 또는 초등 자녀를 둔 여성 2,080개의 관측치에 대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5] [모형 1]은 통제변수만으로 구성한 모형이며,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한 가설을 차례로 검증하기 위해 [모형 2]에서 [모형 5]까지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6]은 각 요인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개별 변수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참고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수가 양(+)일 경우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이 일어날 확률 또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해석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이 일어날 확률 또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결과: 유자녀(미취학·초등)

구분	변수	(1)	(2)	(3)	(4)	(5)	(6)
통제변수	연령	-0.124***	-0.101***	-0.117***	-0.119***	-0.121***	-0.0972***
		(0.0141)	(0.0146)	(0.0143)	(0.0142)	(0.0142)	(0.0148)
	교육	0.159**	0.127*	0.125*	0.123*	0.150**	0.100
		(0.0713)	(0.0731)	(0.0727)	(0.0744)	(0.0722)	(0.0778)
	취업	0.104	0.320**	0.114	0.0129	0.0568	0.206
		(0.134)	(0.142)	(0.137)	(0.139)	(0.146)	(0.163)
	가구소득	-0.0163	-0.0277	-0.0169	-0.0229	-0.0209	-0.0325
		(0.0223)	(0.0234)	(0.0227)	(0.0228)	(0.0225)	(0.0243)
	현자녀수	-0.879***	-0.677***	-0.807***	-0.866***	-0.850***	-0.655***
		(0.0903)	(0.0915)	(0.0912)	(0.0905)	(0.0914)	(0.0931)
	현주택유형 (자가·전세=1)	0.0206	0.0224	0.00639	0.00301	-0.00828	-0.000206
		(0.167)	(0.171)	(0.169)	(0.169)	(0.169)	(0.174)
교환관계-자녀	자녀와의 갈등		-0.200***				-0.178***
			(0.0558)				(0.0593)
	양육비부담		-0.0614				-0.0512
			(0.0443)				(0.0503)
	긍정적자녀가치		0.361**				0.314*
			(0.169)				(0.172)
	본인1순위양육		1.012***				0.975***
			(0.185)				(0.213)
	본인2순위양육		0.259*				0.451***
			(0.152)				(0.169)
교환관계-배우자	배우자와의갈등			-0.0894**			0.0315
				(0.0443)			(0.0586)
	배우자교감			0.125			0.0801
				(0.178)			(0.184)
	배우자가사시간			-0.00506			-0.0197
				(0.0307)			(0.0320)
	배우자1순위양육			0.325			0.325
				(0.950)			(0.965)
	배우자2순위양육			0.744***			0.462*
				(0.195)			(0.239)

15) 이로 인해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여성 및 미취학 또는 초등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여성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출산의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무자녀 기혼 여성과 미취학 또는 초등 자녀 이외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다.

구분	변수	(1)	(2)	(3)	(4)	(5)	(6)
	배우자출산휴가			0.235*			0.206
				(0.126)			(0.131)
교환관계-부모	부모교감				0.299***		0.298***
					(0.103)		(0.106)
	부모1순위양육				1.060**		1.126***
					(0.420)		(0.425)
	부모2순위양육				0.516***		0.662***
					(0.199)		(0.227)
	부모경제적지원가능성				-0.0447		-0.108
					(0.0774)		(0.0816)
교환관계-정부/사회	출산육아휴직연속사용					0.000875	-0.000430
						(0.00177)	(0.00191)
	사회적단절					-0.105***	-0.0673
						(0.0392)	(0.0532)
	정부보육서비스활용					-0.301*	0.0128
						(0.165)	(0.172)
Constant		3.579***	1.817**	3.380***	3.558***	3.915***	1.892**
		(0.556)	(0.777)	(0.610)	(0.577)	(0.574)	(0.828)
Observations		2,080	2,080	2,080	2,080	2,080	2,080
Log likelihood		-858.34113	-825.27008	-846.4128	-846.56609	-852.98056	-808.54443
Pseudo R2		0.1398	0.1730	0.1518	0.1516	0.1452	0.1897

* p<0.05, ** p<0.01, *** p<0.001

먼저,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 교육, 현 자녀수는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와 관계없이 여성의 출산의도에 일관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이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출산의도의 존재 확률은 높아졌다. 또한 현재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이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형 6]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의 출산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혜정·유규창, 2011; 은선경·박효진, 2020; 배광일, 2015, 김일옥 외, 2011, 이다은·서원석, 2021)나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송유진, 2014, Brodmann et al, 2007)의 결과와 동일하다. 현재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이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 또한 선행연구(은선경·박효진, 2020)의 결과와 유사하다.

자녀와의 교환관계에서 지불해야 하거나 얻을 수 있는 교환자원들이 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모형 2]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성일수록 출산에 대한 의도를 가질 확률은 감소하였으나, 양육비 부담은 여성의 출산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그리고 자녀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출산에 대한 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또한 여성이 1순위 양육자일 경우와 2순위 양육자일 경우 모두, 즉 여성이 주 양육자로서 육아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질수록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

16) 이와 관련해서는 보육비 및 교육비 지출이 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주효진 외, 2010; 신윤정, 2008)들이 존재한다.

남편과의 교환관계에서 지불해야 하거나 얻을 수 있는 교환자원들이 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모형 3]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배우자와의 갈등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성일수록 출산에 대한 의도를 가질 확률은 감소하였다.[17]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 및 정보 교환, 배우자의 가사시간은 여성의 출산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마지막으로 남편이 1순위 양육자일 경우와 2순위 양육자일 경우는 여성의 출산의도와 차별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남편이 1순위 양육자일 경우 여성의 출산의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이 2순위 양육자로 참여하는 경우 여성의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여부는 [모형 3]에서는 여성의 출산의도와 정(+)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6]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교환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환자원들이 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모형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와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여성일수록 출산에 대한 의도를 가질 확률은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가 1순위 양육자일 경우와 2순위 양육자일 경우 모두 여성의 출산의도 존재 확률이 높았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지원 가능성은 여성의 출산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형 6]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물리적인 양육지원이 여성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정은희・최유석, 2013; 현정환, 2019)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 및 사회와의 교환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환자원들이 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모형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출산육아휴직의 사용여부는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모형 5]에서는 여성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험하는 사회적 단절 및 고립의 정서적 문제가 여성의 출산의도와 부(-)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6]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정부보육서비스를 자녀 양육에 있어 1순위 또는 2순위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출산의도와 부(-)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선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환관계 변수가 고려된 [모형 6]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별 출산의도에 대한 분석결과

17) 이는 부부갈등이 심한 가구에서는 추가 출산을 포기한다는 선행연구(배광일, 2015)와 유사한 결과이다.

18) 다만, 일부 선행연구(은선경·박효진, 2020)에서는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출산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19) 출산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지훈·안선희, 2017; 김일옥 외, 2011)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한영선·이연숙, 2015)가 혼재되어 있다.

무자녀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육아 경험이 존재하지 않고, 미취학·초등 자녀 이외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자녀 돌봄 형태와 관련된 문항의 답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에서는 이들 여성 전부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최초 분석모형에서 집단별로 응답이 제외된 변수들을 제외한 후 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취학·초등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출산의도와 그 이외의 여성 집단의 출산의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결과: 집단별 분석결과

구분	변수	유자녀(미취학·초등)	무자녀	유자녀(그 외)
통제변수	연령	-0.0972***	-0.154***	-0.105***
		(0.0148)	(0.0199)	(0.0344)
	교육	0.100	0.162	-0.294*
		(0.0778)	(0.121)	(0.157)
	취업	0.206	-0.0530	-0.0294
		(0.163)	(0.272)	(0.302)
	가구소득	-0.0325	-0.0589	-0.0220
		(0.0243)	(0.0405)	(0.0676)
	현자녀수	-0.655***	-	-0.994***
		(0.0931)	-	(0.217)
	현주택유형 (자가·전세=1)	-0.000206	0.450*	-0.161
		(0.174)	(0.262)	(0.359)
교환관계 -자녀	자녀와의 갈등	-0.178***	-	-0.0128
		(0.0593)	-	(0.118)
	양육비부담	-0.0512	-	-0.0379
		(0.0503)	-	(0.112)
	긍정적자녀가치	0.314*	1.244***	-0.516
		(0.172)	(0.298)	(0.392)
	본인1순위양육	0.975***	-	-
		(0.213)	-	-
	본인2순위양육	0.451***	-	-
		(0.169)	-	-
교환관계 -배우자	배우자와의갈등	0.0315	-	-0.240
		(0.0586)	-	(0.146)
	배우자교감	0.0801	0.250	-0.119
		(0.184)	(0.384)	(0.339)
	배우자가사시간	-0.0197	-0.123	-0.00510
		(0.0320)	(0.0765)	(0.0742)
	배우자1순위양육	0.325	-	-
		(0.965)	-	-
	배우자2순위양육	0.462*	-	-
		(0.239)	-	-
	배우자출산휴가	0.206	-	-0.392
		(0.131)	-	(0.359)
교환관계 -부모	부모교감	0.298***	0.0652	-0.155
		(0.106)	(0.196)	(0.262)
	부모1순위양육	1.126***	-	-

구분	변수	유자녀(미취학·초등)	무자녀	유자녀(그 외)
		(0.425)	-	-
	부모2순위양육	0.662***	-	-
		(0.227)	-	-
	부모경제적지원 가능성	-0.108	0.132	-0.185
		(0.0816)	(0.154)	(0.178)
교환관계 -정부/사회	출산육아휴직연속사용	-0.000430	-	0.00710
		(0.00191)	-	(0.00465)
	사회적단절	-0.0673	-	0.120
		(0.0532)	-	(0.135)
	정부보육서비스 활용	0.0128	-	-
		(0.172)	-	-
Constant		1.892**	1.748	7.398***
		(0.828)	(1.274)	(1.810)
Observations		2,080	465	1,331
Log likelihood		-808.544	-232.101	-206.398
Pseudo R2		0.1897	0.1841	0.1454

* p<0.05, ** p<0.01, *** p<0.001

먼저, 무자녀 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 중 연령은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 모두의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유자녀 여성이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무자녀 여성의 출산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또는 전세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유자녀 여성의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던 반면, 무자녀 여성의 출산의도에는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자녀 가구에서는 월세보다 전세, 자가에 거주할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반면 유자녀 가구에서는 점유 형태, 주택유형 등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다은·서원석, 2021)와 일치하는 분석결과이다. 한편, 무자녀 여성의 모형에 포함된 교환관계 변수는 총 5개이다. 이 중 유일하게 무자녀 여성의 출산의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자녀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였다. 자녀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여성이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취학・초등 자녀 이외의 자녀를 둔 여성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현재자녀수가 여성의 출산의도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교환관계 변수는 이 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 이상의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설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여성의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출산에 대한 고려가 이미 여성 개인의 삶에 있어 상당히 후순위로 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초통계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 집단의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약 43세이며, 약 6.8%만이 출산의도를 가질 정도로 출산에 대한 선호가 낮

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출산을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닌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 속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여성의 출산의도는 이와 같은 연속적 과정 중에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환관계에서 여성이 제공하여야 하는 자원과 얻게 될 것이라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비교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기혼 여성들의 출산의도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출산의 의도를 가진 여성들 중에서도 그 의도가 확실한 여성은 더 적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또는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것임이 명백하며, 정책결정자들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출산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출산의도는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현저히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여성 집단에 대한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해 하에 다양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미취학·초등 자녀를 둔 여성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특히 주목할 것은 금전과 같은 전형적인 경제적 자원보다 다양한 교환 주체들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정서적 교감, 정보, 긍정적 가치인식 등 비경제적 교환자원이 제공되었을 때, 여성이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반면, 교환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교환자원은 여성의 출산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자 했던 방향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랜 기간 경제적 자원은 분명 가구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적어도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여성의 출산의도를 강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둘째, 여성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일수록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확률이 낮아졌다. 학업, 취미, 생활습관 등과 관련하여 자녀와 갈등을 겪는 주요 원인은 양육자의 양육지식 및 경험 부족,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있으며, 특히 첫 자녀의 경우 양육자가 경험하게 되는 양육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과 양

육스트레스는 둘째 및 그 이후의 자녀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이대균・황주미, 2008). 양육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 기질 및 성격의 특성, 자녀 세대의 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양육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해 양육 경험자들로부터 지식 및 노하우를 전수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부모의 양육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이 자녀에 대해 정서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식할수록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 여성이 인식하는 자녀의 긍정적 가치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와의 관계를 '장기적 호혜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해줄 수 있으며, 이는 당장의 비용이 실질적인 이익에 비해 크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되는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녀에 대한 가치 인식은 전 사회의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자녀와 생명을 바라보는 가치들이 내면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가치 인식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유소년 시기에 가족・출산・양육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유소년들에게 기존 세대의 가치관을 주입할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유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은 여성이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와 갈등관계에 놓인 경우 출산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긍정적 자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험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양육에 있어 여성이 느끼는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와의 갈등 또는 배우자의 무관심이다(안재진, 2011).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과 부부 간의 원만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훈련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배우자의 가사시간이나 배우자의 1순위 양육참여는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가 1순위 양육자가 아닌 2순위 양육자인 경우에는 여성이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먼저 배우자가 가사보다 양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여성의 출산의도 강화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배우자의 육아 참여에 대한 강조는 여성 본인이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긍정적 교환자원의 가치를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여성의 출산의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배우자의 공동 육아 참여를 강조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족을 위해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여섯째, 여성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받았는데, 돈이나 물질적 교환자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정서적 교감이나 부모로부터의 정보 습득이나 고민 상담, 부모의 양육 지원과 같은 애정 또는 서비스와 같은 비물질적 자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 입소를 위해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배우자와는 다르게 부모가 1순위 양육자인 경우에도 여성의 출산의사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Foa가 제시한 자원 중 '사랑'이라는 자원은 대인관계와 분리될 수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돈이 빠르고 편리하게 1회성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자원이라면, 사랑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장기적 호혜성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자면, 자식이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자주, 장기간 밀접하게 호혜적 관계를 쌓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여성의 출산의도에 있어서 부모와의 교환관계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20] 비혈연관계에서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가 여성에게 부모만큼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과 부모의 교환관계가 계속해서 강건하게 유지되고, 이를 통해 여성이 출산의도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하다.[21]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출산의도가 정부·사회와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교환자원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여성이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부 및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자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 현재의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제도가 그만큼 강한 효과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여성본인, 배우자, 부모가 주된 양육자로서 역할을 했을 때, 여성의 출산의도 확률이 높아졌던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주체들이 주된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여성

20) 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이나 서비스를 중요시하며, 가장 정성스럽게 아동을 돌봐줄 것으로 기대되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돌봄 방식보다 이를 우선시하여 조부모의 돌봄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조부모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족의 아동 양육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변수정 외, 2020).

21)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의 양육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수당 지급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이윤진 외, 2015). 이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조부모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응급처치, 베이비 마사지, 건강관리법, 두뇌발달 놀이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시간당 금액과 월 최대 활동 시간 등에 따라 손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호주의 조부모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다. 호주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인가된 보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에 준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드바이저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 정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의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족 중심의 양육 환경을 선호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공 보육서비스들의 양과 질적 측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가족구성원(배우자, 조부모 등)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정부・사회가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가 가족구성원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22] 이러한 요구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신효영・방은령(2008)은 실제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감의 해소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양질의 교육정책, 우호적 사회 분위기와 같은 사회적 환경개선이라고 지적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사회・국가적 차원의 공공 문제로 인식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소정(2011)과 석호원(2011), 김민곤・천지은(2016) 또한 정부의 출산 정책이 경제적 지원에 편중되기보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이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사회로부터의 긍정적 교환자원을 충분한 정도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본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정부 및 사회로부터의 관계 변수들이 여성의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미취학・초등재학 자녀를 둔 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녀가 없는 여성의 출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견되었으며, 그 요인은 주거 형태이다. 주거와 관련된 요인들과 여성의 출산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다은・서원석(2021)의 연구 과에서도 유자녀 여성에게는 현재의 주거환경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었던 데 비해, 무자녀 여성에게는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 형태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거주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무자녀 여성의 출산의도에 주거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점을 반영하여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자녀 가구의 첫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비관적 전망과 자조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여성들 본인이 주된 양육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 추가적인 출산의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문제 해결의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여전히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1차적인 교환관계에 있는 자녀와의 경험을 비용보다 보상이 더 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성이 본질적으로 출산의 주체이자 주된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여성의

22) 구체적으로 공공 보육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안전한 공공보육 환경 마련, 공공 보육 및 교육의 질 향상, 교사-아이, 교사-부모 간 긍정적 상호작용 강화, 보육 및 교육의 공백 발생 억제 등 여성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여성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정부, 그리고 사회의 주체들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의 긍정적 보상을 높이고, 부정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물질적 자원의 교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애정, 서비스, 정보, 지위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의 교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저출산·저출생의 문제는 한 가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정책적으로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거나 1회성의 주먹구구식 정책들을 더하기보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의 니즈와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여성들이 실제로 충분한 체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출산 의도를 가진 여성들이 출산에 실패하지 않도록 부부 모두의 난임 치료 및 체외 수정 시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법적 혼인 이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와 그에 따른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초저출산·저출생 문제는 이러한 전 방위적인 노력들이 장기간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부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출산의도	(1)	1																							
연령	(2)	-0.43*	1																						
교육	(3)	0.08*	-0.1*	1																					
취업	(4)	0.02	0.09*	0.08*	1																				
가구소득	(5)	-0.07*	0.16*	0.25*	0.3*	1																			
현자녀수	(6)	-0.39*	0.31*	-0.15*	-0.05*	0.04*	1																		
현주택유형	(7)	-0.05*	0.12*	0.13*	0.03*	0.16*	0.00	1																	
자녀와의 갈등	(8)	-0.19*	0.23*	-0.05*	0.06*	0.00	0.19*	0.00	1																
양육비부담	(9)	-0.1*	0.06*	-0.11*	0.00	-0.15*	0.15*	0.00*	0.47*	1															
긍정적자녀 가치	(10)	-0.03*	0.08*	-0.04*	0.00	0.02	0.08*	0.00	0.02	0.09*	1														
본인1순위 양육	(11)	0.26*	-0.25*	0.03	-0.13*	-0.03	-0.22*	-0.01	-0.16*	-0.1*	0.01	1													
본인2순위 양육	(12)	-0.07*	0.07*	-0.09*	-0.12*	-0.12*	0.12*	-0.02	-0.01	-0.01	0.01	-0.41*	1												
배우자와의 갈등	(13)	-0.05*	0.02	-0.03*	0.05*	-0.02	0.05*	0.00	0.44*	0.45*	0.04*	-0.04*	-0.02	1											
배우자교감	(14)	0.07*	-0.1*	0.09*	0.02	0.02	-0.07*	0.02	-0.07*	-0.05*	0.00	0.04	-0.03	-0.1*	1										
배우자가사 시간	(15)	0.09*	-0.2*	0.1*	0.11*	-0.02	-0.06*	-0.02	-0.12*	-0.07*	-0.02	0.08*	-0.06*	-0.15*	0.09*	1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배우자1순위양육	(16)	0.04*	-0.04*	0.02	0.06*	0.01	-0.04*	0.00	-0.05*	-0.03	-0.06*	-0.02	0.00	0.00	0.00	0.11*	1								
배우자2순위양육	(17)	0.18*	-0.14*	0.00	-0.01	-0.03	-0.15*	-0.01	-0.12*	-0.07*	0.02	0.52*	-0.28*	-0.04	0.03	0.12*	-0.01	1							
배우자출산휴가	(18)	0.1*	-0.2*	0.2*	-0.02	0.05*	-0.11*	0.00*	-0.04*	-0.01	-0.02	0.06*	-0.03	0.00	0.07*	0.06*	0.03	0.03	1						
부모교감	(19)	0.15*	-0.24*	0.18*	-0.02	0.04*	-0.09*	0.00*	-0.06*	-0.06*	0.02	0.07*	-0.07*	-0.01	0.06*	0.09*	-0.02	0.02	0.14*	1					
부모1순위양육	(20)	0.1*	-0.06*	0.05*	0.11*	0.06*	-0.06*	0.03	-0.06*	-0.04	0.02	-0.05*	0.04*	-0.03	0.01	0.06*	-0.01	-0.03	0.04	0.07*	1				
부모2순위양육	(21)	0.07*	-0.02	0.11*	0.23*	0.16*	-0.06*	0.02	0.00	-0.02	0.00	0.08*	-0.3*	0.01	0.02	0.02	0.02	-0.08*	0.04*	0.12*	-0.02	1			
부모경제적지원가능성	(22)	0.05*	-0.1*	0.27*	-0.01	0.15*	-0.08*	0.00*	-0.1*	-0.17*	-0.01	0.04	-0.02	-0.12*	0.04*	0.05*	-0.06*	0.04*	0.08*	0.16*	-0.01	0.01	1		
출산육아휴직연속사용	(23)	0.08*	-0.17*	0.21*	0.22*	0.19*	-0.15*	0.00*	-0.07*	-0.06*	-0.01	0.05*	-0.1*	0.03	0.05*	0.1*	0.01	0.08*	0.19*	0.09*	0.02	0.15*	0.07*	1	
사회적단절	(24)	-0.03	-0.07*	-0.02	-0.1*	-0.1*	0.05*	-0.02	0.4*	0.48*	0.01	0.04*	0.01	0.6*	-0.06*	-0.1*	-0.03	-0.02	0.04*	0.01	-0.04	-0.06*	-0.12*	-0.03	1
정부보육서비스활용	(25)	-0.1*	0.13*	-0.07*	0.03	-0.03	0.13*	-0.08*	0.1*	0.04	0.00	-0.22*	0.05*	0.01	0.02	-0.02	-0.01	-0.12*	-0.07*	-0.04*	-0.06*	-0.04	-0.04	-0.02	-0.03

* $p<0.05$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김동현, & 전희정. (202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환경요인에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2), 303-336.

김명자. (1990). 교환이론적 관점에서의 가족학 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8(3), 147-160.

김민곤, & 천지은. (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2), 163-190.

김선숙, & 백학영. (2014).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1(3), 129-157.

김선희. (1989). 데이빈슨의 의도 (Intention) 이론. 철학, 31, 199-221.

김은실. (1996).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2), 119-153.

김일옥, 왕희정, 정구철, & 최소영. (2011).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4(3), 139-155.

김정연, & 김영주. (2022).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 영향요인-계획적 행위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적용.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20(5), 93-100.

김현식, & 김지연. (2012).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3), 5-32.

김현식. (2017). 가구소득과 거주형태가 출산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0, 425-438.

김현주, 이선이, & 이여봉. (2021). 모자녀 간 자원교환과 대안인식이 균형유지전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65, 5-36.

노영주. (2000).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18(3), 71-83.

박서연. (2019).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HLM을 활용한 신혼부부의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학회, 35(1), 59-72.

박창우, & 송헌재. (201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한국응용경제학회, 16(1), 5-24.

배광일, & 김경신. (2011). 생태학적 변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23-149.

배광일. (2011). 출산의도 및 출산 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배광일. (2015).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현재 자녀수에 따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67(1), 31-53.

백경숙, 곽소현, 서혜전, & 박수선. (2020). 결혼과 가족. 서울: 양서원.

변수정, 정희선, 최선영, & 조성호. (2020). 가족유형 다양화에 따른 영유아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서석원, 이대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석호원. (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143-180.

성낙일, & 박선권. (2012).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인구학, 35(2), 73-101.

송유진. (2014).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339-347.

신기영, & 옥선화. (2000).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8(8), 29-51.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신효영, & 방은령. (2008).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충청남도 시· 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4), 205-227.

안재진. (2011). 안재진. (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8.

오삼권, & 권영주. (2018).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 연구: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2(1), 55-81.

오지혜. (2020).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모의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1), 361-393.

유계숙. (2010). 기업의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자의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8(2), 89-96.

유종열. (2010).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이론적 접근: 교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4), 33-47.

은선경, & 박효진. (2020).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3(4), 210-217.

이다은, & 서원석. (2019).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특성요인 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 4(46), 75-89.

이다은, & 서원석. (2021).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22(1), 1-15.

이대균, & 황주미. (2008).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어려움과 기쁨. 유아교육학논집, 12(5), 103-132.

이병재, & 김태완. (2018). 경제사회적 특성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 3-18.

이윤진, 권미경, & 김승진. (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이형민. (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31.

이혜정, & 유규창. (2011).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0(1), 37-79.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서울: 법문사.

임현주, 이대균, & 최항준. (2011).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모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31(6), 167-189.

정미숙, & 김준수. (2021). 여성의 사회자본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편 육아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23(3), 111-135.

정은희, & 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주효진, 곽경희, & 조주연. (2010).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211-228.

차승은. (2005). 결혼 및 부모됨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지훈, & 안선희. (2017). 가족친화제도, 직장생활, 가정생활과 추가출산의향 간의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35(2), 77-92.

최희진, & 한경혜. (2017).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 한국노년학, 37(1), 83-102.

한영선, & 이연숙. (2015). 여성취업과 일·가정양립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Human Ecology Research, 53(1), 49-66.

현정환. (2019). 부모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14, 25-43.

홍소정. (2011). 출산 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Brodmann, S., Esping-Andersen, G., & Güell, M. (2007). When Fertility Is Bargained: Second Births in Denmark and Sp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5), 599-613.

Bühler, C., & Fratczak, E. (2007). Learning from others and receiving support: The impact of personal networks on fertility intentions in Poland. European societies,

9(3), 359-382.

Bühler, C., & Philipov, D. (2005). Social capital related to fertility: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from Bulgaria.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53-81.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Wadsworth, Inc.

Caldwell, J. C. (1980). Mass Education as a Determinant of the Timing of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6(2), 225-255.

Cochrane, S. H. (1979). Fertility and Education: What Do We Really Know?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Dettling, L. & Kearney, M. (2014).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0, 82-100.

Di Giulio, P., Bühler, C., Ette, A., Fraboni, R., & Ruckdeschel, K. (2012). Social capital and fertility intentions: The case of Italy, Bulgaria, and West Germany (No. 2/2012).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s.

Foa, U. G. (1971). Interpersonal and Economic Resources: Their structure and differential properties offer new insight into problems of modern society. Science, 171(3969), 345-351.

Foa, U. G., & Foa, E. B.(1974). Societal structures of the mind Spring field. Illinois: Thomas.

Friedman, D., Hechter, M., & Kanazawa, S. (1994). A theory of the value of children. Demography, 31, 375-401.

Hui, E. C., Zheng, X., & Hu, J. (2012). Housing Price, Elderly Dependency and Fertility Behaviour. Habitat International, 36(2), 304-311.

Lesthaeghe, R., & Moors, G. (1995). Living Arrangements, Socio-Economic Position, and Values Among Young Adults: A pattern description for Belgium, France, the Netherlands, and West-Germany, Belgium, and the Netherlands, 1990, in David Coleman(ed.), Europe's Population in the 1990s, (p.163-221). Oxford University Press.

Lovenheim, M, F., & Mumford, K. J. (2013). Do Family Wealth Shocks Affect Ferrility Choices? Evidence from the Housing Marke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2), 464-475.

McDonald, P. (1996). Demographic Life Transitions: an Alternative Theoretical Paradigm. Health Transition Review Supplement, 6, 385-392.

Myers, S. M. (1997). Marital uncertainty and childbearing. Social forces, 75(4), 1271-1289.

Philipov, D., & Shkolnikov, V. (2001). Fertility intentions and coping strategies: Results from the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 In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Washington DC.

Philipov, D., Spéder, Z., & Billari, F. C. (2006). Soon, later, or ever? The impact of anomie and social capital on fertility intentions in Bulgaria (2002) and Hungary (2001). Population studies, 60(3), 289-308.

Putnam, R. D. (1993).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Mar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청시 외 옮김(2000). 서울: 박영사.

Richter, K. (1994). The impact of child care on fertility in Urban Thailand Demography, 31(4), 651-662.

Robert, M. G.(1975).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and economic resources upon values and the quality of life.

Ryff, C. D., Lee, Y. H., Essex, M. J., & Schmutte, P. S. (1994). My children and me: midlife evaluations of grown children and of self. Psychology and aging, 9(2), 195-205.

Sahlins, M. (1972). Stone Age Economics. New York: Aldine de Gruyter.

Silverstein, M., Conroy, S. J., Wang, H., Giarrusso, R., & Bengtson, V. L. (2002). Reciprocity in parent-child relations over the adult life cours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1), S3-S13.

Simon, C. J., & Tamura, R. (2009).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S Cities, 1940-200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1), 33-42.

Turner, J. H. (1978). 사회학 이론의 구조(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김진균 외 옮김(1994). 서울: 한길사.

Van de Kaa, D. J. (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290-331.

Yi, J., & Zhang, J. (2010). The Effect of House Price on Fertility: Evidence from Hong Kong. Economic Inquiry, 48(3), 635-650.

사이트

통계청. (2023a).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통계청. (2023b). 2023년 6월 인구동향.

언론 및 보도자료

경향신문. (2023.08.30.). 출산율 0.7명...끝 모를 인구 감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302101035)

동아일보. (2019.10.10.) “아이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직장인 10년치 연봉

쏟아부어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0/97803147/1)
통계청. (2022.11.16). 2022년 사회조사 결과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통계청 보도자료.